



2022년 1월 2일(제1069호) 주님 공현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의 빛 예수님”

우리에게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이는 보이지 않지만, 표정이나 행동, 말투, 상황 속에서의 자세나 태도 등을 통하여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외적인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마음이 걸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자연스레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면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느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 공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오 복음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했던 이들이 당시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지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머의 먼 곳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자비, 곧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더불어 제2독서의 에페소서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임이 계시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신분과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쫓아 아기 예수님께 이르렀듯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보고 그 사랑안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욕심과 집착이 있거나, 혹은 세상의 것들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빛을 놓쳐버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굳은 신앙과 의지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거룩한 사제,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이며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이 되시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몸과 마음을 떼어놓지 말아야 할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빛,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원진(시도요원) 신부
해병대요원(해병대교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60,1-6

회 목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 시

에페 3,2.3-5.6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마태 2,1-12

영 성 제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집

열세 번째 시집

예수 마리아 요셉

리브와 신부님께

상해에서, 1845년 6월 4일

공경하올 신부님!

작년에 조선 대목구의 감목이신 공경하올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주교님의 선교지인 조선에 파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에서 준비를 끝내고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배로 상해에 왔습니다. 그리고 페레올 주교님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단히 분주하여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후에 질서정연하게 신부님께 편지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조선인 학생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열네 번째 시집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님께

(상해에서, 1845년 6월 4일)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

지극히 존엄하올 주교님과 변문(즉 책문)에서 하직한 후, 저녁 무렵에 의주에 도달하였습니다. 거기서 밀사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혼자서 밤에 강을 건너고 관문(關門)을 통과하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닷새를 소비하여 평양이라는 도시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까지 무사히 여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집』 발행,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기쁨 그리고 웃음



사는 게 기뻐
웃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좋아
웃을 수 있는 건.

님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웃음
오래 간직하시길.

1월 상시집 묵상글

복음 낭독: 루카 1,26-38

이어서 신자 가운데 한사람이 아래의 글을 낭독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의 맏아드님이시며, 외아드님이십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고 싶은 것이 어떨할 것이며,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다면 아픔이 얼마나 클지는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보통 외아들의 죽음을 비유로 삼았습니다(예레 6,26; 아모 8,10; 즈카 12,10 참조).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며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것을 보셨을 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에이셨을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서 수난하실 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표양과 덕 가운데 중요한 표양 네 가지를 생각하며, 그 모범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첫째는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신 순종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서도 예수님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마태 26,39)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드님에 대한 넘치는 겸손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욕과 천대를 피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망신이 당신에게 쏟아지는데도 가장 나쁜 형벌을 받은 자의 어미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수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골고타까지 가셨고,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돌아가시기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자신을 당신 아드님께서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원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셋째는 모든 시련을 이기신 용기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십자가 밑에서 악당들의 잔인함과 혹독함을 보시면서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 바라신 것은 단 하나, 곧 당신을 위하여 수난하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당신도 함께 수난하고 죽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불같이 타는 사랑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당신 아드님의 원수까지도 품어 안으셨습니다. 악당들이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하고,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도 성모님께서서는 분노하시기보다 그들이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과 그들이 받을 벌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진심으로 변호해 주셨습니다.

인자하신 어머니, 어머니의 아드님 예수님께서서 저희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그 광명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도록 전구하시어, 저희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그분의 덕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게 해 주소서.

출처 : 『상시집』, 한국진주교주교회의, 2012, 103~104쪽 발췌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공현 대축일: 중평 103위 성인 유윤상 신부

◆ 교구장 동정

- 군중후원회 신년미사
 때·곳: 2022년 1월 3일(월) 15:00, 가톨릭회관
- 2022년 사제 피정
 때·곳: 2022년 1월 3일(월) ~ 7일(금),
 교구 내 성당

◆ ‘신부(神父)의 책장(시존3)’ 인내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